임채빈 새 경륜황제 등극…정종진 설욕 무산

대상경륜 광명특선 결승 6경주 한바퀴 선행승부로 버티기 성공 "임채빈 시대 예상보다 빨리 도래" "2~3년후에도 대항마는 없을 것"

경륜 팬의 기대를 모은 빅매치였던 정 종진(34세 20기 김포)과 임채빈(30세 25기 수성)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다시 임채빈이 승리를 거두었다.

임채빈은 올 시즌 두 번째 대상경륜으 로 열린 '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특별경 주'의 17일 광명 특선 결승 6경주에서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한 바퀴 선 행승부로 버티기에 성공해 뒤따르던 라 이벌 정종진의 반격을 무산시켰다.

이번 결승은 지난 번 첫 맞대결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정종진의 설욕전으 로 관심을 모았다. 하지만 그랑프리 4연 패를 비롯해 50연승 등 많은 기록을 세 우며 경륜의 '살아있는 레전드'로 불리 던 정종진의 자존심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●한바퀴 선행으로 정종진 도전 봉쇄

정종진과 괴물 신인 임채빈의 맞대결 은 온라인 발매기념 대상에서의 첫 격돌 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. 두 선수의 경



경륜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륜에서 우승한 임 채빈이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. 사진제공 | 국민체육진흥공단

주 스타일 자체가 크게 달라 1차전에서 임채빈이 승리를 했지만 팬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렸다.

임채빈이 데뷔 후 단 한 번도 뒤따라 오는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자력승부형이고, 정종진은 폭 발적인 순발력과 마무리 능력으로 매번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. 일종의 '창과 방 패'의 대결이어서 보는 팬들의 관심이 높았다. 많은 팬들은 은근히 이번 두 번 째 대결에서는 정종진의 반격을 기대했 다. 실제로 경주 당일 배당은 오히려 정 종진이 임채빈보다 앞섰다.

17일 결승에서 임채빈은 첫 맞대결 이

상의 거리인 한바퀴 선행을 시도했다. 정종진은 흔들림 없는 완벽한 마크로 임 채빈을 따라붙었다. 하지만 결승선을 앞 두고 정종진은 끝내 거리차를 좁히지 못 했다.

전술이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륜 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도 임채빈의 완 승이라고 볼 수 있었다. 많은 전문가들 은 이번 대결 승리로 "임채빈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"고 평가했다.

현존 최고의 순발력형인 정종진이 압 도를 당하면서 힘 대 힘으로 임채빈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. 물 론 천하의 임채빈도 데뷔 이후 2패를 기

임채빈이 진 두 경기 모두 순간 스퍼 트 타이밍을 놓치면서 외선 병주가 길어지 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. 내선의 심한 견제를 받는 경우지만 의도치 않았던 이변 이어서 다수가 협공을 시도해도 인위적으 로만들기 어려운 형태다. 그만큼 임채빈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.

●새 대세 등장에 수도권 강세 막 내리나

임채빈의 부상은 지역구도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 정종진이 그랑프리 4연패를 하는 동안에는 황인 혁, 성낙송, 정하늘 등 동료 선수들의 존

재감이 나름 있었다. 정종진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료선수와 호흡도 맞추는 경 기운영의 묘가 있었다.

하지만 임채빈은 그냥 '칠 테면 쳐봐 라'란 식이다. 이런 스타일은 나머지 SS 급 4명을 마크맨으로 전락시킬 지경에 이르렀다. 완벽한 1인 독주 시대를 의미 해 SS급 존재의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커질 전망이다.

정종진의 김포팀은 지금까지 인접한 동서울, 세종을 아우르며 수도권 막강체 제를 형성했다. 하지만 임채빈의 등장으 로 변방인 수성팀이 단번에 최고반열에 올라섰다. 인근 경상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파급력이 더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. 수도권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.

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"재대결에서 정종진이 쓸 수 있는 방법 이 단순한 마크 추입 밖에 없다는 것만 으로도 임채빈의 우위를 증명한 것이 다"며 "임채빈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졌 고 현 멤버나 향후 2~3년 후까지 신인 들을 포함해도 대항마가 없을 전망이어 서 이젠 지역 또는 연대의 흐름이 어떻 게 변화될지 오히려 더 관심이 간다"고 밝혔다.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경륜·경정

<u> 소</u>골츠동아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



광명스피돔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사진제공 | 국민체육진흥공단

경륜·경정. 영업장 휴장기간에도 방역 계속

경륜·경정이 안전한 경주와 향후 방문 고객들의 안전 한 관람을 위해 영업장 휴장기간 중에도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우선 선수들은 선수동 입소부터 퇴소까지 철저히 방 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. 입소 시 전원 PCR검사를 시 작으로 생활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, 1일 4회 발열체크, 1일 2회 활동공간 방역, 식사 시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 를 시행하고 있다. 선수동 방문객은 직원을 포함해 누구 든 PCR검사를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하다. 또한 고객의 입장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영업장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. 지침에 따른 입장정원 관리, 스마트 입장시스템 완비는 물론 영업장 내 거리두기, 주 기적 환기, 매일 영업장 소독 등을 준비하고 있다.

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"영업장 재개 시에도 방 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된 고객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 로 운영할 계획이다"라고 말했다.

스피드온 신규고객 페이백 이벤트 마감 임박

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1일까지 경 륜·경정 온라인 발매(Speed-On)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% 페이백 이벤트를 시행한다.

스피드온에 새로 가입한 회원 중 200명을 추첨해 특 별경주 첫 번째 경주에 베팅한 금액 전액(최대 5만원 1인당 구매상한액)을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 지로 되돌려준다. 스피드온 회원가입은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.

스피드온 회원 가입 마일리지 이벤트가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. 회원가입 시 1000원, 마케팅 정보 활용 동 의 시 2000원, 은행 계좌정보 연동 시 5000원의 마일리 지를 지급한다.

편집 | 좌혜경 기자 hk7048@donga.com

온라인경주…하서우·염윤정 '약자들의 반란'

하,34회 1일차 14경주 3착 기록 염. 37회 2일차 14경주서 첫 승 "일시적 아니다. 이변 계속될 것"

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던 경정은 온라 인 발매를 통해 활기가 다시 돌면서 지금 은 매 회차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벌어지 고있다.

현재 본장 등 수도권 지점은 폐쇄된 상 황이지만 천안, 대전을 비롯해 부산·창원 은 일부 고객을 입장시켜 경정팬들의 아쉬 움을 달래고 있다.

올 시즌 경정은 강자의 주도적인 경주운 영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약자로 평가되던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잇다.

승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이어 김민천(2기 A1 46세)이 13승, 김종민(2기 A1 45세), 조 성인(12기 A1 34세)이 12승으로 뒤따르고 있다.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배 기수와 강력 한 스타트와 탁월한 전개력으로 신인부터 각광을 받던 선수들이 강세다.

하지만 다승 랭킹 20위권을 보면 전에 볼 수 없던 선수들이 다수 보이는 등 변화 가 심하다. 편성에서 축으로 인정되는 선 수들의 모터기력이 열세를 보이면서 플라 잉경주에서는 그나마 스타트 승부를 통해 순위권 경합을 벌이지만 온라인경주에서 는 고전을 면치 못해 이변이 생기고 있다.

심상철과 조성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경주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경주 보증수표 로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다. 심상철은 현재 심상철(7기 A1 40세)이 14승으로 다 46회 출전 중 1착 25회 2착 8회 3착 9회로



승률 54.3% 연대율 71.7% 삼연대율 91.3%를 기록해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였 다. 조성인도 48회 출전 중 1착 17회 2착 6회 3착 10회로 승률 35.4% 연대율 47.9% 삼연대율 68.8%를 기록하고 있다.

하지만 최근 성적을 보면 34회 1일차 14경주(9월 22일)에서 심상철은 5착, 조성 인은 4착을 기록했다. 반면 하위급 기량으 로 평가받던 하서우(14기 B2 28세)가 기력 이 좋은 78번 모터와 적극적인 피트력을 통한 붙어돌기 전개로 3착을 기록해 고배 당(삼복승 42.5배 쌍복승 86.3배)을 터트

렸다.

또한 프로 입문 이후 단 1승도 없던 염윤 정(16기 B1 34세)은 생애 첫 승리를 온라 인경주에서 기록했다. 37회 2일차 14경주 (10월14일)는 온라인경주에서 유리한 1코 스에 출전한 김민준(13기 A1 34세)을 축으 로 하는 저배당이 예상됐다. 그러나 염윤 정은 8번 모터(소개항주 6.82초)를 활용해 모터의 직선력을 살려 1턴 휘감아찌르기 전개로 승리해 쌍승 253.7배 삼복승 6.9배 쌍복승 189.6배를 터트렸다.

이서범 경정고수 경주분석 위원은 "최 근 훈련량이 부족해 강자들이 고전하는 부 분도 있지만 약체로 분류되던 선수들이 화~목요일 시행되는 지정훈련부터 집중 력을 끌어올려 본 경주에서도 강자들을 제 압해 이변을 터트리고 있다"며 "일시적 현 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남은 시즌 동안 많 은 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"고 전 망했다.



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,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기능함 •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리

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•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